

2 종합

중운위, 불참 사유 인정 · 대리인 자격 관련 기준 부재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우리학교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연이은 불참을 이유로 미술, 치과, 의과대학 학생회장의 중운위 자격 박탈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중운위 불참 사유서 승인 기준과 대리인 자격에 관한 세칙이 부재한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캠 총학생회칙 제31조 5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차기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임시 2차 회의를 포함하면 미대는 연속 5회, 의대는 연속 3회, 치대는 6회 연속 불참한 상태다.

중운위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참여 및 의결권 모두를 갖지 못해 회의록으로 회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

다. 이처럼 ‘자격 박탈’이라는 중대 조치가 걸려 있음에도, 실제 회칙에는 불참 사유서 제출 의무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불참의 정당성을 판단할 공식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운위는 세 개 단과대 학생회장에게 불참 사유서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운위에서 불참사유 타당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의 경우, 불참할 경우 반드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학생회칙 제30조 6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 시 차기 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단, 불참 시 불참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유서의 타당성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

그러나 정작 중운위는 이러한 사유서 제출 의무조차 없는 탓에, 현재 세 단과대 회장의 불참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문화된 절차가 전무한 상태다.

확운위와 중운위 모두 ‘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세칙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 관례로 판단해 왔다. 제16회 중운위 속기록에 따르면 엄규민(경영학 2020) 총학생회장은 “확운위의 경우 관혼상제, 천재지변, 질병, 아르바이트, 여행이 주요 불참 사유”였으며 “중운위는 소속 단위 행사 주체의 신분을 따는 경우, 천재지변, 관혼상제, 질병, 군 관련 일정, 그리고 특정 단위의 대표 자임을 감안하고도 참석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경우 인정했다”고 말했다.

대리인 관련 세칙 또한 부재한 상

황이며 이 역시 관례로 적용되고 있다. 관례로 적용해 온 바에 따르면, 학생회장이 불참할 경우 부학생회장이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보장받는다. 다만, 학생회 다른 임원인 경우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관례는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실습으로 인해 6회 연속 불참한 치대 김기연(치의학 2022) 회장은 지난 중운위 회의에서 “치대 부학생회장은 같은 일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월요일 19시에 실습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치대 대리인으로서 중운위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운위 회의는 매주 월요일 19시에 열린다.

불참 인정 사유, 불참사유서 제출, 그리고 대리인 관련 사항 모두

세칙이 아닌 관례를 따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세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엄 학생회장은 “이전 총학생회에서도 중운위와 확운위 관련 세칙이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서도 “해마다 중운위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세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령, 아르바이트로 인한 불참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불참’이라는 의견과 ‘단위 대표자로서의 책임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엄 학생회장은 “타학교 역시 모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세칙과 관련해서 부총학생회장과의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명확히 개정에 대한 진척도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캠 가을 대동제 ‘아델란테’ 우천 변수에 공연·부스 운영 차질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가을 대동제 ‘아델란테’가 우천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마무리됐다. 다만 일부 초청 아티스트 공연이 취소되고 1·2일 차 부스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사흘간 진행된 축제 중 1·2일 차에는 일일 강수량 46mm가량의 큰 비가 내려 부스 운영·무대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양일간 비는 오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내렸다. 비가 세차게 내린 오후 2시경부터 늦은 오후까지 학

생 부스는 운영되지 못했다. 이 시간 동안 부스 대부분 바닥에 물이 차올랐고, 부스 운영진은 비를 피해 철수하기 바빴다.

도예학과 학생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판매한 ‘은채네 동물 농장’ 부스를 운영했던 신혜리(도예학 2024) 씨는 “축제 1일 차 때 비가와서 발목이 넘도록 물이 차올라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했다”며 “사람이 아무도 방문하지 않아 부스 운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농구부 프런트 KBF는 “축제 1일 차부터 많은 비가 내려 다른 부스들이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축제 분위기

가 살아나지 않아 오전 시간에는 방문 학생 수도 적어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공연에도 차질이 있었다. 1일 차 아티스트 밴드 ‘실리카겔’은 당일 리허설 도중 비로 인해 공연 장비가 일부 파손되어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리허설이 축소된 채 무대 재점비 시간이 이어지고, 저녁 학생 공연 시간이 한 시간 지연됐다.

1일 차 학생 공연에 참여한 우리학교 응원단 ‘컬스라’의 김윤진(반도체공학 2024) 응원단장은 “리허설 시간에 충분히 맞춰봐야 했던 공연 요소들을 맞추지 못했다”며 “바



축제 1일 차에는 폭우가 쏟아져 부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몇몇 부스는 기존 운영 시간보다 일찍 철수해야 했다. (사진=김예찬 기자)

닥이 미끄러워 무대의 타일을 밟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총학은 공연 리허설을 취소한 대신, 공연 시간을 한 시간 지연하고 공연 직전 짧게나마 공연 팀에게 리허설 시간을 제공했다. 컬스라 측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단원들이 있었으나 큰 부상 없이 무대를 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구부 프런트는 “학생회 차원에서 축제 시작부터 미운영 동아리를 파악하고 상황을 관리했다”며 “특히 부스가 진흙탕이 돼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회 측이 장소를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우천 상황에 대한 사전 준비와 관련해 “매뉴얼대로 진행했다”고만 밝혔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